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	기간	2018.01.21.~2018.02.11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캐나다 온타리오주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수세인트 마리의 알고마 대학. 수세인트 마리는 좁은 곳라 시골 같은 분위기의 곳입니다. 자연 경치와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알고마 대학은 과거 원주민들의 기숙 학교였으며 큰 규모의 학교는 아니지만 학생들끼리 모두 친해지려는 분위기의 학교였습니다.
수업	수업은 시험을 보고 2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2개의 반 모두 말하기듣기/쓰기읽기/문법 반을 실시했고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은 2개의 반이 합쳐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문법은 한국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가장 지루하고 어려웠습니다. 쓰기읽기 수업에서는 글을 읽고 선생님과 같이 말하며 문제를 푸는 수업이며 영어로 쓰는 과제가 몇 번 있었는데 높은 수준의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듣기말하기 수업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이 다루어졌으며 마지막에는 토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멋있는 분들이시고 영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멋있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외부 활동으로는 말 썰매, 개 썰매, 스키, 봉사 등이 있었습니다. 스키복과 부츠가 필요하지만 홈스테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모두 빌려주시니 따로 챙겨갈 준비물은 따로 없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의 겨울보다 조금 더 춥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매일매일 와서 부츠를 신고 다녀야합니다. 부츠는 홈스테이 가족들이 하나씩 빌려주셔서 굳이 따로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외투는 코트 같은 겉옷은 필요 없고 생존템인 롱패딩정도 챙겨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복도 필수입니다. 핫팩은 가져가서 아주 따뜻하고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안전	눈밭에만 묻히지 않고 얼어버린 빙판길에만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다른 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모두 다 친절하셔서 길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다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겨울이어서 그런지 저녁 6시만 되면 어두워지는데 어두워도 위험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버스가 10시면 다 끊깁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v) 외부 숙소( ) 기타( ) 홈스테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 엄마가 아주 좋은 분이셨지만 방에 난방을 안 틀어주셔서 잘 때 너무 추워서 이 점이 가장 흠이었습니다. 난방을 틀어달라고 말했지만 담요를 더 주셨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v) 외부식당 ( ) 기타( ) 솔직히 입맛에 맞았던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외국 나갈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랑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식하면 비용이 조금 나갔지만 그래도 외식할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한국음식이 정말 많이 생각나서 중간에 친구가 가져온 햇반과 함께 참치캔과 김을 먹었을 때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컵라면, 햇반, 참치캔, 고추장, 김은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홈스테이 집이 학교 근처라 걸어 다닌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닌 친구들 중에도 버스를 한번만 타면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번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곳이라 버스는 3일 정도만 타고 다니면 익숙해집니다. 버스 패스권은 학교에서 나눠주고 잃어버리면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생활비	99만원	여유 있게 씀
합계	99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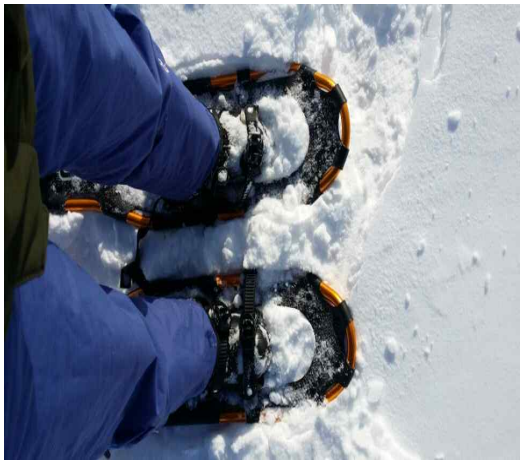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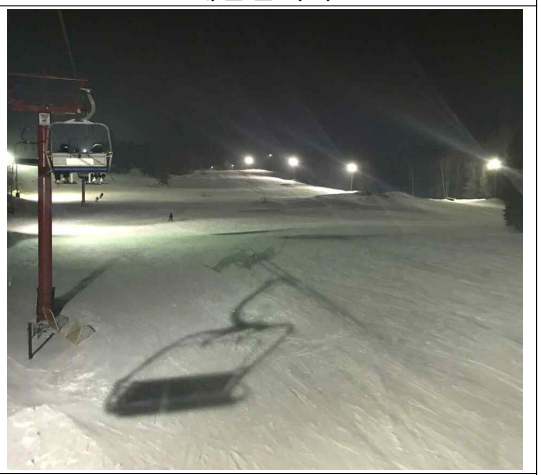
현지에서만 파는 물건들을 알아보고 가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어떤 선물들을 사야할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추우니 따뜻한 옷과 핫팩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 부츠나 스키장갑 같은 것들도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키 바지의 경우 홈스테이에 말씀을 드리면 다들 빌려주시니 개인적으로 챙겨 가면 짐만 되어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홈스테이 집을 처음 방문할 때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물품을 드리면 좋아하시니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대부분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수세인트마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짧은 영어라도 친절하게 대답해주셔서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떠나기 전에는 혹시 의사소통이 안 되지는 않을까도 걱정되었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타지에 있는 것은 처음이라 겁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 지내면서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게 되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었으며 마지막 졸업식에서는 너무 아쉬워 돌아오기 싫었습니다.

수세인트마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여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의 영어 공부에 대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일찍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 신입생 및 저학년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첫 날, 학교에 간 날, 학교의 건물 모습입니다.		눈 밭 위를 걸어 다니는 스노우 슈잉 체험입니다.
		
말 썰매의 모습		스키장에 간날 리프트 위에서 찍은 모습
개썰매를 타면서 찍은 사진		아이스 하키 경기를 보러 갔을 때